

# 장백산천지

제 221 호

2013 년 12 월 27 일

금요일

[밍후이 기자 장원(章韵)토론토에서 보도] 2013년 11월 16일, 캐나다 토론토 (加拿大多伦多)의 주변 도시인 워털루(滑铁卢), 해밀턴(哈密尔顿)과 브라이튼(布莱顿)에서 같은날 부동한 시간으로 나누어 각각 일년에 한번씩 열리는 성탄 대 행진이(圣诞大游行) 거행되었다.

**대행진 사회자: 그들은 이렇게 대환영을 받아요.**

파룬궁 수련생들로 구성된 토론토 천국악단은 이 세 도시의 요청을 받고 하루 사이에 연이어 3차례 대행진에 참가 하게 되었는데 어디로 가나 모두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워털루 대행진 협조인 스티브(史蒂夫)는 “그 어디에서나 모두 환영을 받기에 그들은 아주 분망히 보냈습니다.”고 말했다.워털루 주민 크리스트는(克瑞斯特) “악단의 진영은 아주 크고, 음악도 경쾌해 이 명절에 아름다운 축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그의 부인 허싸이는 “그뿐만 아니라 못 사람들에게 일종 온화 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주었습니다.”고 말했다.

**중국인:국내에서는 잔혹한 박해를 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열렬한 환영을 하고 있네요**

장선생의 일 가족은 중국대륙 산서(山西)에서 왔다. 그는 “해외에 도착하자마자 파룬궁의 굉장한 진영을 보게 되어 기분이 진짜



2013년 11월 16일 토론토 천국악단, 워털루 성탄 대행 에서 환영받다

다름니다. 국내에서는 잔혹한 박해를 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열렬한 환영을 하고 있네요”라고 말했다.

행진대오를 기다리던 남경에서 온 이선생은 “해외에서는 매체가 아주 자유로워서 파룬궁의 소식을 모두 료해 하고 있으며 파룬궁이 세계에 널리 전해져 있다는 것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중공만 그들에게 잔혹한 박해를 진행하고 있지만 왕리쥔(王立军)과 보실라이(薄熙来)의 끝장을 보더라도 기실 중공은 자신의 종말을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선생은 또 “몇 년전 까지만 해도 가끔씩 귀국을 했었는데 현재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중국에서 지금 유행 하고 있는 토호금(土豪金)을 알고있습니까? 그것은 중국의 돈 많고 소질없는 자들이 강도처럼 빼앗아온 돈을 마구 휘날리는 것을 말합니다. 도덕과 인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기도 훔칠 정도로 망탕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린 아이들마저 해외로 나가야만 출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소학생도 선생님한테 뇌물을 줘야만이 학교에 다닐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그래도 희망이 있을까요?” 라고 말했다.

이선생은 천국악단이 도착한 것을 보고 “아주 웅장합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중국의 희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감탄 하였다.

## 연길시 루이커룽, 3년 불법 형을 받게되어 박해가 엄중하다

◆[밍후이왕 2013년 11월 1일 소식] 작년에 연길시 국보대대의 정철수(鄭哲洙), 김성철(金成哲) 등 경찰에게 납치당한 파룬궁 수련생 루이커룽(芮克荣)은 두 차례나 불법 재판을 당했는데 지금 이미 구타당해 몸에 심각한 상황이 나타났다. 가족들은 여러차례 병보석을 요구 하였지만 연변 주 ‘610’, 연길시 법원, 연길시 국보대대 등 부문의 각종 제

지를 받았다.

금년 8월말 연길시 법원에서 루이커룽에게 3년 불법 형을 내렸다. 루이커룽이 접수하지 않고 상소를 제기 하였다.

◆[밍후이왕 2013년 12월 21일 소식] 길림성 연길시 파룬궁 수련생 루이커룽은 12월 17일에 장춘여자감옥에 납치되었다. (뒷면에 계속)

# 연변 조선족 리기옥 로인이 당한 잔혹한 박해(련재2)

## 2.연길시공안국 지하고문실

2012년 4월 17일, 연길시의 4명 조선족 파룬궁수련생 태호(太浩)와 그의 모친 김순선(金順善,) 리기옥, 허원종(許元鍾)은 농민을 도와 신당인(新唐人) 위성텔레비전을 설치하고 돌아오는 길에서 손님을 싣는 소형버스로 가장한 차에 앉게 되었다. (사실은 일찍부터 뒤따르던 연길 경찰이 배치한 차임) 매 사람마다 차비 5원씩 낸지 오래지 않아 따라오던 소형버스에서 몇 사람이 내리더니 녹상을 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4명의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했다. 그중 한 사람이 허원종을 보고 "우리는 국가안전부다"라고 말하면서 허원종과 태호를 따라온 차에 밀어 넣고, 리기옥과 김순선은 계속 원래 앉았던 차로 연길시공안국 지하고문실(酷刑室)로 납치해 고문을 했다.

리기옥은 목을 꼬집히고 발에 걸어 채였다. 그리고 그의 얼굴과 옷 위에 냉수를 쏟았다. 리기옥과 김순선은 여러 차례나 까무러쳤다. 리기옥은 숨이 올라오지 않았고, 혈압이 올라가 병원으로 3 차례나 실려 갔다. 그중 한 번은 정신병원으로 보내졌다. 맨 마지막에 간암이란 진단이 내려졌다. 납치되기 전까지만 해도 몸은 여전히 아주 좋았으나, 납치당하자마자 박해로 몸에 심각한 상황이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도 재난을 면하지 못했다. 2개월 후 건강이 회복되기도 전에 또 세뇌반으로 납치했다. 이번에 와서 납치한 사람은 연길시 국가보안대대의 정철수(鄭哲洙), 김성철(金成哲) 등이다.

## 3. 용정 세뇌반의 묶기 고문 등 박해

용정 세뇌반에서 주와 시의 '610'은 사오한 자인 길림 화전의 소령(邵玲), 유수(榆樹)의 류모, 길림성 특종부대 왕모 등을 조종해 리기옥에 대해 정신적 세뇌와 육체적 박해를 했다. 특수



고문연시(演示) : 묶기고문

경찰 왕모는 흰천 끈으로 리기옥을 묶었다. 두 팔은 힘껏 뒤로 향해 묶고 쌍 가부좌한 다리를 묶어서 머리와 한데 연결해 묶어 놓아 머리와 다리의 거리는 매우 가까웠다. 그런 다음 다시 팔, 다리, 머리를 모두 한데 연결해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침대 위의 이불을 치우고 비닐 장판을 깔았으며, 또 사부님 사진 위에 앉게 했다. 리기옥이 순종하지 않고 사진을 꺼내라고 하니 특수경찰 왕모는 "흥, 한 장 뿐인데도 꺼내라고? 전에 한 할매는 60 장이나 바꿨다"라고 말했다. 화장실로 가려고 풀어달라고 요구하니 류모는 "오줌을 누기만 하면 입안에 부어 넣겠다."라고 외쳤다. 이렇게 66세의 나이로 암 진단을 받은 로인은, 고박 36시간 동안 묶여 움직이지도 못했고 또 화장실로 가는 것도 허락받지 못했는데, 이 때문에 팔은 온통 손바닥만 한 크기의 혈관이 파열된 흉터가 나타났다. 그리고 탈항(脫肛)되고, 홍문에서 출혈하고, 썩어 문드러졌으며 전신 부종이 나타났다. 그후 이끌려 화장실로 갈 때는 까무러 쳤다. 악인들은 육체적인 박해를 감행한 동시에 온갖 거짓말로 세뇌했다. 세뇌효과를 공고히 하기 위해 로인의 신체가 이렇게 허약한

데 또 화룡 세뇌반으로 끌고가 계속 박해를 가했다. 화룡에서 로인은 탈항 하고 혈압이 높은 증상 때문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화룡 세뇌반에서는 50세 넘은 팔가자의 여성파룬궁수련생 로평(老彭)이 층집에서 뛰어 내린 사건이 발생했다. 몇일간의 세뇌박해로 인해 그녀는 아주 고통스러웠다. 몇일후에는 1층에서 2층으로 옮긴 후 화전 사우자 소령과 연길시 사오자 오미화(吳美花)등은 로평에게 흰색천으로 묶는 고문까지 했다. 점심시간쯤 로평은 마침 2층에서 뛰어내려 도망갈수 있는 기회가 생겨 그 사악한 곳을 벗어 나려고 뛰어 내렸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가 검사한 결과 허리뼈 하나가 부러져서 아래 부위의 척추뼈에 들어가 영원한 마비(癱瘓)로 되었다. 방교(幫教)를 하던 오미화 박영자(朴英子), 송수진(宋秀芹)은 놀란 나머지 점심도 못먹었고 매사람 각각 500원씩 로평에게 줬다. 화룡 '610'책임자는 이 사실을 목격한 몇사람을 모여 놓고 소문을 내지 말라고 당부했고, 로평의 의료보험도 만들어 줬다 오미화는 또 로평 집의 과일을 3만원되게 팔아주었다.

(리기옥은 이미 대법수련으로 돌아왔다) (끝)

(앞면의 계속)

### 책임자:

연길시법원원장:채송남(蔡松男)  
0433-2586301, 13944705561  
부원장:루웨이쉬(盧偉緒)  
0433-2586302, 15844331725  
청장(庭長):김선숙(金善淑)  
0433-2586366, 13804482511  
부청장:장다원(張大文)  
0433-2586360, 15143351366